

## 기억해야 할 역사…“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

도, 이일남 애국지사 위문방문  
독립유공자·유족 만남의 날 개최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 예우 확대

충남 보훈관 용봉산 자리 위치  
올해 개관 4년…애국·화합 공간  
충혼탑 애국지사 육신·정신 상징

###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충남도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상기하기 위한 보훈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0일 생존 애국지사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도는 금산 출신 애국지사로 대전에 거주 중인 이일남(96) 응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전주사범학교 재학 당시인 1942년 6월 일본인 교장의 민족차별 교육에 분개해 학우들과 ‘우리회’를 조직,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자금조달을 위해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 중 1945년 1월 발각돼 체포됐으며, 광복 후 출소했다.

아울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등 충청권 입원환자 260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위문활동 일환으로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앞서 도는 6월 15일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월진회의 시소리극 공연, 헌시 낭독, 독립군가 제창, 청명국악단의 국악공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대접하는 오찬과 위로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그동안 숨겨진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지난해에는 독립유공자 997명을 발굴하고, 409명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다.

지하수 음용세대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저소득 보훈가족 밀반찬 지원사업, 독립유공자 후손의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

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의 거리에 충남독립운동가 4인의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훈관은 6월 25일 개관 4주년을 맞았다.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 일원 위치한 충남 보훈관은 대일항쟁기 독립전쟁,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과 보훈공원, 충혼탑 등 공간으로 구성됐다.

충혼탑은 충남 15개 시군을 뜻하는 15m 높이의 빗살무늬토기 모양으로 설치됐다. 특히 항일운동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기 위해 1000개의 정육면체 블록을 쌓고 청동검 형태의 풍경을 달아 애국지사의 육신과 정신을 표현했다.

보훈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은 휴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 보훈관(☎041-635-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2, 4253

/김정원 jwkim87@korea.kr



6월 호국보훈의 달 “숭고한 희생정신 기려” 충남도는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 협약을 위해 다양한 보훈사업을 펼친다. 충남도민들이 6월 22일 충남 보훈공원 충혼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 민선8기 출범…220만 도민과 ‘힘쎈 충남’ 만든다

### 제39대 김태흠 충남도지사

7월 1일 도청 문예회관서 취임식

민선8기 충남도정을 이끌 제39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월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제39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식을 진행한다.

취임식에서는 민선8기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새로운 도정비전과 희

망을 제시한다.

취임식은 식전공연, 민선8기 비전영상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대통령 등 축하메시지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취임식 전 충남보훈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선8기 도지사 1호 결재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6월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충남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충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와 매칭(Matching)사업의 재검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정신문팀

## 충남 해수욕장 7월 2일부터 개장

### 대천해수욕장서 머드박람회 개최

도, 해수욕장 안전·운영사항 점검

충남 해수욕장이 7월 2일부터 잇따라 문을 연다.

7월 2일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꽃지·만리포·천리포 등 태안 해수욕장 28곳을 시작으로, 7월 9일 보령 1곳, 당진 2곳, 서천 1곳 등 도내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할 예정이다.

올해 도내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는 다양

한 행사가 펼쳐진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동안 해양 관련 국제박람회인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와 함께 여름 대표축제인 머드축제도 열려 해수욕과 머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6월 22일 도청에서 ‘2022년 충남 해수욕장 운영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해수욕장 개장 대비 안전 및 운영사항을 점검했다.

/해양정책과 041-635-2763

# 3주 대잔치

충남으로 놀러오세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백제문화제

계룡세계문화엑스포

7.16.(토) ~ 8.15.(월)

충남보령시 신죽동 2828  
대천해수욕장 인근

10.1.(토) ~ 10.10.(월)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  
부여군 구드래 일원

10.7.(금) ~ 10.23.(일)

계룡대 활주로 일원

## ‘보령국제요트대회’ 참가 명단 확정

7월 20~24일 대천앞바다 개최

보령머드박람회 연계 차별화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의 해외 각국 대표 선수 참가 명단이 확정됐다.

국내 첫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요트대회인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수역에서 열린다.

J70 종목은 개최국인 한국과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 10개국 40여 명이 참가한다.

옵티미스트 종목은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그리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 11개국 6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기준 J70 종목은 총 10팀을 국내 2팀, 국외 8팀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공지(NOR)가 공시된 이후 관심이 높아져 해외 선수들에게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 1팀, 국외 9팀으로 조정했다.

15세 미만 유소년이 참가하는 옵티미스트 종목도 경기 공지 공시 이후 많은 관심 속에 해외 참가 선수 명단

을 일찍 마감했다.

아울러 이번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요트경기 외에도 서해바다 요트탐험대, 참가 선수·임원 지역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022보령해양마드박람회’와 연계해 체험과 관광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요트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는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보령해양마드박람회조직위, 보령축제관광재단 등이 후원한다.

/해양정책과 041-635-4774

### 도정만평

설인호



## 천수만 양식장 119 이동병원 운영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진료·치료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서해수산연구소는 6월 21~22일 여름철 고수온 피해가 심한 천수만 일대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현장 119 이동병원’을 운영했다. <사진>



대비 어장관리 및 어류 관리 요령 등도 전파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74

## “우리 쌀로 아이들 건강 지켜요”

도, 쌀 식품가공 활용 교육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6~17일 ‘우리 쌀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한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을 했다.

교육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에 대한 이론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라이스도우를 활용한 벼가 의거는 과정, 핑크가 딸기딸기해 쌀카

롱 만들기, 동물반달떡 만들기 등 실습 프로그램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우리 쌀 식품가공 활용 교육을 통해 쌀의 우수성과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86

## 충남도서관에서 논어 배워요

도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충남도서관은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해 어떤 배움을 얻어야 하는지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충남도서관은 최 소장에 이어 7월 8일 작가 은유, 7월 22일 바디마인드 랜싱푸드 박성혜 대표 등 초청 강연을 연다.

신청은 충남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7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한다

도, 답례품 개발·마케팅 전략 마련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한다.

도는 6월 1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

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맡은 (주)공감만세(대표사)와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도내 답례품 개발 및 발굴 ▲홍보 전략 수립 ▲모금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한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21

## 백화점서 우수 로컬 상품 만나세요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 행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에서 ‘2022 상반기 로컬크리에이터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 신규상품 제안전’을 진행한다.

이번 신규상품 제안전은 ‘2022 상반기 로컬크리에이터 갤러리아백화점 아름드리 입점 품평회’에서 선정된 기업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개사 40개 상품이다.

산양삼 약콩 두유, 생강즙, 꿀생강차, 수제도라지정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대전) 아름드리 2호점에서 6월 17일부터 24일 까지 신규상품 제안전을 진행했으며,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천안) 아름드리 1호점과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수원) 아름드리 3호점은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안전을 진행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21

## 무지(無知), 가장 무서운 것이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4) 야학을 열다



윤봉길은 오치서숙을 나온 뒤 사랑방에 서당을 차리고 아동들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다. 윤봉길은 아동들에게 전자문만이 아니라 한글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사실을 ‘17세에는 개도 아니 먹는 똥을 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필이력서’에서 적고 있다. 윤봉길은 18살이던 1926년 가을에 친구들과 함께 야학당을 개설하였다. 그가 야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오치서숙에서 공부할 때 겪었던 공동묘지 묘묘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서당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마을의 공동묘지 쪽에서 나무로 된 묘표(墓表)를 한 아름 들고 오는 낯선 아저씨를 만났다. 오랜만에 온 텁에 자기 아버지의 묘를 확인할 수 없어 주위의 묘표를 뽑아 와서 아버지 묘표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다. 윤봉길은 그분이 밀한 나무 풋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청년은 아버지 묘표를 찾은 것을 마치 돌 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온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혹시 이 풋말은 자리에 무슨 표시라도 했소?”라고 묻자 이 청년은 명하니 풋말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당신 선친의 묘표는 찾았지만 산소는 어떻게 찾으려 하시오!” 이 청년은 자신의 아버지 묘는커녕 다른 이의 묘 주인도 구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때 윤봉길은 총독부의 철권통치보다도 무서운 것이 ‘무지’(無知)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학을 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가 역사와 지리 수업은 경찰의 단속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윤봉길은 이를 탄식만 하지는 않았다.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역사를 교육하는 기발한 방법을 찾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한글 교과서 속의 글을 칠판에 써 놓고 우리 역사와 위인의 전기를 가르쳤다. 윤봉길의 교육 방식은 상당히 엄했다. 부인과 동생들도 야학에 나오게 하여 가르쳤는데, 여동생들도 많이 훈났다. 그런데 부인에게만은 관대하여 여동생들한테 불공평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한다.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인,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한뜻

국제연맹에 공동서한문 전달

충청권 100만 서명운동 전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당선인이 6월 20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향한 충청권의

변함없는 의지를 담은 공동명의의 서한문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이하 국제연맹)에 전달했다.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국제연맹 본부에 전달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보도시

로 선정됐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2027 대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지난 6월 9일 목표치의 절반인 50만 명을 돌파에 이어 6월 16일 58만 4000명을 넘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국제연맹의 7월 기술점검과 8월 평가단 방문 등 현지실사를 거쳐 11월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집행위원 투표에서 최종 개최도시로 ‘2027 충청’이 올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발걸음 잡은 6월의 코스모스 충남 서천군 서면 가로변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서천군 제공

##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

도, 터미널·주택가 불법차 단속

충남도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지도·단속했다.

단속은 도내 주택가·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 및 민원 상습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 설비유지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이다.

이외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점검했다.

/교통정책과 041-635-2844

## 시인 윤동주 낭독회 개최 28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충남도서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9일 도서관 문화교육동 강

당에서 저항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시인, 동주’ 소리극 낭독회를 개최 한다.

이번 소리극 낭독회는 한국방송 (KBS) 33기, 40기 성우와 전문 성우들이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생

생한 연기를 통해 윤동주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낭독회 신청은 6월 28일까지 충남도 서관 누리집(<https://library.chungnam.go.kr>) 강좌/행사신청에서 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1

## “참전용사 애국정신 잊지 말자”

### 6.25 전쟁 제72주년 기념식

충남도는 6월 21일 덕산스플라스 리솜에서 6.25전쟁 제72주년을 맞아 조국수호에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기념행사 및 전쟁영웅 위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보훈단체 회원 및 참전용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쟁 동영상 시청, 표창 전달, 6.25 노래제창, 전쟁영웅 위로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도는 6.25참전유공자회 충남지부 운영 활성화 사업과 저소득 보훈가족 및 독거 참전유공자 밑반찬 지원사업 등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3

## 낚시어선·낚시터 장비 점검

### 7월 4일까지 안전 감찰

충남도는 7월 4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및 해상 낚시터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다.

이번 안전 감찰은 도내 낚시어선 997척과 해상 낚시터 78곳을 대상으로 ▲인허가, 폐업(원상복구 등), 출

입항 신고 준수 등 행정 절차 이행 여부 ▲안전성 검사(점검) 이행, 전문교육 이수, 안전 장비 구축 및 작동 실태 등 시설 안전 기준 적합 여부 ▲법·제도 현장 작동 실태, 각종 점검 사례 조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안전정책과 041-635-2176

## “지금 바로 걷주에 가입하세요”

### ‘걷주’ 와 함께 걸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함께 걸어 기쁨 두 배! - 가족, 친구와 함께 걸으면 즐거움도 커집니다.

걷는 만큼 포인트가 차곡차곡! - 건강을 챙기고 포인트도 쌓입니다.

기부 캠페인에 참여! - 모은 걸음을 기부가 가능합니다.

하루 활동량을 체크! - 걸어서 소모된 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는 인센티브! - 목표 걸음을 달성한 어르신께 건강상품을 드립니다.



[ 지금 바로 걷주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체육회 Chungnam Sports Council

# 코로나 이후 첫 재난 훈련…섬 지역 화재 대응력 강화

도, 재난 대비 현장훈련 실시  
소방차, 헬기·드론 등 장비 활용

충남도는 6월 16일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 일원에서 ‘2022년 재난 대비 안전총점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37개 유인도와 224개 무인도 등 261개에 달하는 많은 섬이 도내 존재하는 만큼 섬에서 대형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훈련은 자체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초동 대처,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출

동, 관계기관 간 공조 대응 등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훈련에는 도와 당진시,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육군1789부대, 케이티(KT), 당진시의용소방대, 당진시자율방재단, 아마추어무선연맹, 어촌계 등 11개 기관·단체 104명이 참여했고 소방차, 소방정, 헬기·드론 등 육해공 27개 장비를 활용했다.

아울러 이날 훈련에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통신이 끊긴 상황을 가정해 아마추어무선연맹과 함께 긴급통신망 구축도 시연했다.

/사회재난과 041-635-3284



화재 상황을 가정해 안전훈련을 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개 부문 6월 30일까지 접수  
수상자 상금, 컨설팅 지원 혜택

충남도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융·복합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6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월 최종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기관장상 등 시상과 함께 총 1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본선에 진출하는 최종 2개팀에게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컨설팅, 멘토링)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고 이를 활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식은 충남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https://c11.kr/yjd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72

## 충남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교육

회사 소개서 제작, 판촉 지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출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남 소재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의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업체는 ‘수출 희망 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3회에 걸친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회사 및 제품 소개서 제작(영문, 중문번역&

디자인) ▲회사 및 제품 홍보용 사진 동영상 자막 제작(영문, 중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품평회; 판촉전 지원 ▲수출 등 판로확대를 위한 디렉토리북 제작 등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trade@ccei.kr](mailto:trade@ccei.kr))로 신청하면 된다. 단 선착순 모집이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72

## ‘소문난 샵’ 서천·청양 서비스 개시

서천·청양 주문 할인 선착순 진행

충남도는 민관 협력 충남형 배달앱 ‘소문난 샵’ 서비스를 서천·청양군에서 정식 개시한다.

서천·청양 지역에서 소문난 샵을 이

용하면 1만 5000원 이상 첫 주문 시 5000원 자동 할인 쿠폰이 적용된다.

첫 주문 완료 시 7월 16일까지 사용 가능한 재구매 쿠폰(5000원)을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소문난 샵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

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 협력 사업으로 도입한 공공 배달앱으로, 별도 광고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가 전국 최저인 0.9%로 낮다.

자세한 내용은 소문난 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문난 샵 가맹점 신청은 고객센터(☎1811-8674, ☎1899-1267)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4

## 감자떡 감잣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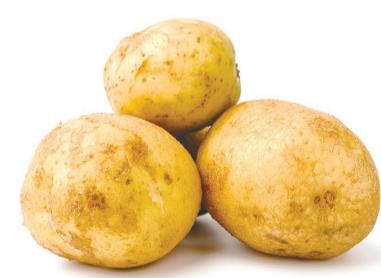
이명재의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 감잣가루, 감자 갈아 양금 말린 가루

“보리감자 써놨더니 밑이 차가 있어 물이 흘르네 그라. 기냥 버리긴 뒷허구 암만히두 물이 당겼다가 감잣가루를 내야 쓰겄어.”(예산·홍성)

충남 전역에서 널리 써온 ‘감잣가루’는 감자나 고구마를 갈아 가라앉은 양금을 말려 만든 가루다. 표준어는 ‘녹말가루’인데, ‘녹말(綠末)’은 ‘감잣가루’를 나타내는 한자말이다.

해방 직후엔 일본어의 잔재인 ‘가닥가루’란 말이 많이 쓰였다. 일제 30년간 일본말은 우리 국어를 지배 하다시피 위력을 발휘했으나, 해방



이후 온 국민의 국어순화운동에 썰물처럼 밀려났다. 그리고 순우리말 ‘감잣가루’가 살아났다. 감잣가루는 주로 1980년대 이전에 쓴 말이다. 학식 있는 일부 충청사람들은 ‘감잣가루’ 대신 ‘녹말가루’나 ‘준분(澱粉)’이란 말을 쓰기도 했다.

충청도에서는 여름에 캐는 감자는 보통 ‘보리감자’라 했다. 보리가 익는 하지에는 보리감자가 풍성했다. 그래서 ‘하짓감자’라고도 했다. 양식

이 떨어져 굶주리던 보릿고개는 감자가 수확되면서 끝났다. 이 감자는 2~3개월의 휴면 기간이 있어 저장해 놓고 오래 먹었다. 그런데 많은 감자를 한 곳에 저장하면 속에 썩은 감자가 종종 생겼다. 감자가 물리지면서 흰곰팡이가 피어나면 감자는 먹을 수가 없었다. 먹진 못하고 버리긴 아깝고, 이럴 때 충청사람들은 ‘감잣가루’를 만들었다. 상한 감자를 자루에 넣어 시냇물에 담가두면 감자가 꽂아 물령물령하게 된다. 대신 곰팡이는 쓸려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이 꽂은 감자를 으깨어 가라앉히면 양금이 함지박 바닥에 쌓였다. 이 ‘감잣가루’로 떡을 만들면 감자떡이 되고, 감잣가루로 부침개를 부치면 감자전이 되었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 도내 창업기업, 멘토와 상담하세요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 모집

고 창업기업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충남소재 (예비)창업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약 180명의 전문가 멘토의 이력을 보고 희망하는 멘토와 최대 3시간, 1회 멘토링이 가능하다.

멘토링 프로그램 문의 및 신청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36

## ‘제철 수산물’ 충청권역 판로 넓힌다

도, 충청권 소비자 판촉 행사

담점) 행사엔 도내 수산식품 기업 3곳이 참여해 김 제품, 젓갈류, 해삼 등을 판매했다.

다음 달에는 충북, 8월부터 11월 까지는 대전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어촌산업과 041-635-4844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세계대학 젊은이들의 축제!**  
**꿈과 열정의 한마당!!**

**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한민국 충청으로 반드시 유치하여**  
**스포츠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세계대학 젊은이들의 축제!

꿈과 열정의 한마당!!

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한민국 충청으로 반드시 유치하여

스포츠의 메카로 힘차게 도약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회기간 | 2027. 8월 중(12일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충남혁신도시 랜드마크 광장 조성한다

도,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9월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

주중에는 주차공간으로, 주말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충남혁신도시 랜드마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목적 광장은 중앙에 다양한 행사와 놀이, 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도민마당과 잔디광장을 배치해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고, 충남대로를 따라 수공간, 충남길 및 휴게공간 등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길에는 바다분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암석원 및 그라스원 등을 배치하며, 주변에 도록인



충남혁신도시 다목적 광장 조감도

소나무와 다층식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심 속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서관과 한국방송(KBS), 도청사 등 어느 방향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진입광장을 비롯해 상

진원, 산책로를 조성한다.

경관조명도 설치해 야간에도 도민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041-635-3570



당진 면천읍성 객사 복원

충남 당진시는 6월 16일 조선시대 왜구 방어를 위해 쌓은 면천읍성 내 객사 복원 현판식을 가졌다. 복원된 객사는 정청 3칸과 서익헌 3칸, 동익헌 5칸 등 모두 11칸(면적 207m<sup>2</sup>)이다.

/당진시 제공

## 이순신 최후의 결전, 노량해전

###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조선 수군과 日 마지막 해전

가장 큰 전과, 이순신 장군 전사

1598년 8월 18일 일본의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일본에서는 조선에 있던 일본군 대장들에게 ‘화의(和議)’를 성립시키고 11월 중순까지 귀국하라.’는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 사실이 조명 수군에게 알려진 것은 11월초였다.

당시 순천 예교성전투(9.20~10.5) 후 흥양(현 전남 고흥) 나로도에 유진하고 있던 이순신은 11월 8일 도독 진린과 함께 다시 예교성을 향해 출전하였다. 11월 11일 묘도에 도착한 조명 수군은 일본군의 해상 탈출로 차단작전을 시작하였다.

탈출로가 막힌 일본군 고니시는 진린에게 뇌물로 부탁하여 14일 통신선을 남해에 주둔하고 있던 소요시토시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순신은 양쪽에서 협격을 당할 경우 위



노량해전 상황도

험하다고 진린에게 항의한 후 선제 기동을 하여 노량수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당시 조선 수군은 판옥선이 60여 척, 명 수군의 전선은 300척 이상으로 추정된다. 18일 자정에 노량수로에 도착한 이순신은 하늘을 우러러 ‘이 원수를 없앨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此讐若除 死即無憾)’라고 벌었다.

11월 19일 새벽 2시경 시마즈 군이 주축이 된 일본의 구원군 300여 척이 노량수로 좌단에 도착하여 교전이 시작되었다. 명 수군은 북쪽에, 조선 수군은 남쪽에 배치되어 일본군의 서진을 막으면서 적을 관음포 쪽으로 유도하였다. 특히 북서 풍을 이용한 화공전과 함께 치열한

근접전도 이루어졌다. 이순신과 휘하 장졸들은 생사를 도외시한 체적극적으로 싸웠다.

일본군은 조명 수군의 화공전을 당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여 관음포 쪽으로 몰리게 되었다. 패색이 짙은 일본군은 퇴로가 막힌 관음포에서 필사적인 탈출을 기도하였다. 동이 틀 무렵, 관음포 입구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이순신은 적 총탄에 가슴을 맞았다. 이순신은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도 전황을 걱정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한 후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순신의 유훈을 받든 군관 송희립은 전투 마무리를 잘 하여 적을 크게 물리쳤다. 비록 이순신을 포함한 장수급 10여 명이 전사했지만, 우리 전선은 겨우 4척이 분멸되었을 뿐 일본군은 장수급 30여 명이 전사하고 군선 200여 척이 분멸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노량해전은 7년 전쟁 중 가장 큰 전과를 거둔 결전으로서, 통쾌한 복수적 의미와 함께 전쟁의 참상에 망연자실해 있던 조선 백성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 MZ세대가 제작한 범죄예방 동영상

### 충남지치경찰, 공모전 우수작 포상

만 19~39세 청년 33명이다. ▲사회관계망(SNS)스토킹 범죄 예방 ▲이륜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운행방법 3건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앞으로 위원회와 충청남도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충남지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 120충남콜센터 ‘우수 콜센터’

###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 조사

상담 태도 등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120충남콜센터는 상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매년 상담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87

##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연시회

### 노동력 88% 절감 효과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청양군 남양면 마룡리 논마늘 포장에서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연시회에서는 수집형 수확기 작동 원리, 기계작동 연시, 문제점 및 개선점 의견을 제시했다.

수집형 수확기(컨베이어형)는 시중에서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확기와 달리 수확 전 작업인 ‘굴취, 흙털기, 수집(톤백)’을 일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은 88%를 절감했고, 10a당 작업시간도 2.1시간으로 효율을 극대화 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73

**560만 충청인의 염원!**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세요!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 ①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 ②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 접속
- ③ 이름, 거주지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온라인 서명운동 <http://ccbcbank-onlinesign.kr>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 “현혈 동참하고 생명나눔 실천하세요”

충남도청 공직자, 현혈행사 참여  
단체현혈 안정적 혈액수급 기여

충남도 공직자들이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한 혈액 보유량 회복·유지를 위해 올해 두 번째 ‘사랑의 현혈’에 동참, 생명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공직자들은 6월 21일 도청 1층 1번 출입구 앞에서 열린 사랑의 현혈 행사에 참여해 현혈기부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앞장섰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현혈 활성화로 일일 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 적정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혈액은 보존기간이 짧고, 혈

액 자급률도 해마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현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혈액 자급률은 2018년 99.2%, 2019년 98.1%, 2020년 97.3%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에는 92.7%로 하락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10~20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등으로 자급률은 9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충남은 지난해 기준 10~20대 현혈 비율이 63%에 달했지만, 올해 3

월 기준 10~20대 현혈가능 인구 수는

26.4%로 급감했다.  
이에 도는 현혈기부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도 현혈추진협의회를 개최해 현혈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관공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현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단체 현혈을 7차례 진행했고, 올해도 짜증달 셋째주 화요일마다 현혈 행사를 개최한다”며 “공직자부터 현혈에 적극 참여해 혈액보유량 적정 단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정책과 041-635-4302



충남도청 직원들이 현혈을 하고 있다.

## 충남 마을기업 2곳 우수성 인정

### “지역사회 균형발전 노력할 것”

충남도는 ‘정동영농조합법인’(부여군)과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청양군)이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각각 ‘우수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동영농조합법인은 지역농산물인

콩으로 손두부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올해 생청국장 등 새로운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은 농업환경이 척박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천장리에서 체험관광사업을 시작해 현재

는 연 매출액 31억 원에 달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법인은 매년 세계조롱박축제 및 얼음분수축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마을축제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에 기여했다.

한편 ‘우수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최대 1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버로 출국해 4주간 어학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게 어학연수는 해외 인턴십 및 복수학위제 학생들의 어학실력 및 현지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김용찬 총장은 “어학연수는 영어 회화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를 힘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10

## 충남도립대 어학연수생 선발

### 7월 29일부터 4주간 캐나다 연수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영어 회화 능력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충남도립대는 6월 22일 하계 어학연수생 8명에 대한 선발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선발학생은 7월 29일 캐나다 벤쿠

## 하루 밤사이 사라진 석조 불상

###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 -서산 용현리 비로자나불좌상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석조 불상.

여기까지 들으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애삼존상상을 떠올릴 것이다.

그 아래 마애여래삼존상 관리사무소 인근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은 석조 불상이 하나 더 있었다. 불상의 이름은 ‘용현리 비로자나불좌상(龍賢里毘盧舍那佛坐像)’

서산 보원사지(瑞山 普願寺址)에서 발견되어 1980년대에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관리사무소 인근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2005년 3월 하루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 당시 관계자는 “마애삼존불 관리사무소 직원이 3월 19일 오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좌상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20일 오전 9시 출근해서 좌상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담

배꽁초 1개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인을 잡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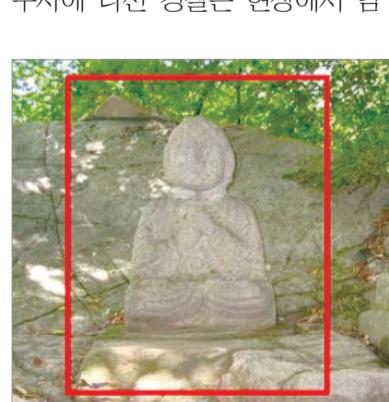
불상은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서 조각하였는데, 높이 93cm, 어깨너비 40cm, 두께 15cm의 크기이며 무게는 100~120kg 정도이다. 머리가 몸체에 비해 큰 편인데, 목 부분에 몸체와 연결한 흔적이 남아 있다. 오랜 세월 노천에 방치된 탓에 얼굴 부분은 마모가 심한 편이지만 소라 모양으로 표현된 머리카락인 나발(螺髮)과 상부에 높고 큰 상투 모양의 육계는 희미하게 남아 있다. 각이진 어깨와 네모난 신체, 형식적인 옷 주름 표현 등을 볼 때 고려

이후의 불상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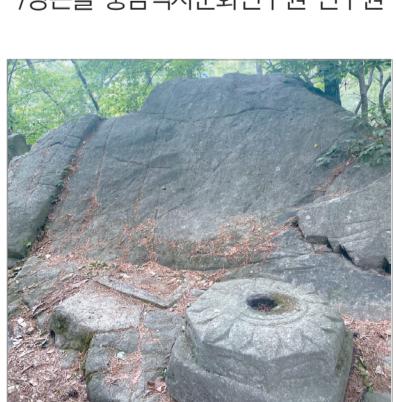
세월에 깎이고 부서졌으나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중생의 염원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었을 부처님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

절터에 방치된 불상들은 대부분 산중에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있으므로 관리가 소홀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도난당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불상 도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장은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서산 용현리 비로자나불좌상 도난 전 모습  
사진/문화재청



서산 용현리 비로자나불좌상 도난 후 모습  
사진/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 ✓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산후 케어 프로그램
- ✓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시스템 등
- 산후 케어를 위한 최고의 시설로 모십니다.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 예약 방법

-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평일 14:00부터 선착순 방문 예약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 및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예 분만 예정일이 2022년 4월이 경우 2022년 2월 7일(월)부터 4일간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 안내

-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 Tel. 041-630-6384(평일 08:30~17:30까지)

#### 이용 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

#### 이용료 : 182만 원(2주 기준)

기 간	1주(7일)	2주(14일)	3주(21일)	4주(28일)	비 고
금 액	91만 원	182만 원	-	-	-

※ 예약금: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으로 합니다.
- 쌍생아 출산 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Tel. 041) 630-6384

www.chppcc.or.kr

# 부부 소방관, 바다에 빠진 외국인 구했다

충남소방본부 소속 강태우·김지민  
당진 왜목마을서 익수자 구해



강태우 씨 김지민 씨

부부 소방관의 발 빠른 대처와 기지로 바다에 빠져 위험에 처한 외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6월 18일 오후 5시쯤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해수욕장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충남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해변에서 20m 떨어진 해상이었고, 당시 수면 위로는 뒤집힌 튜브만 보이는 상황이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족여

행차 왜목마을을 찾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소속 강태우 소방교가 사고현장을 목격했다. 강 소방교는 목격자 2명의 도움을 받아 즉시 바다에 몸을 던졌다. 1급 응급구조사이다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강 소방교는 맨몸으로 헤엄쳐 바다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을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익수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

강 소방교의 배우자이자 당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김지민 소방교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잠시 후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하며 의식을 찾았다.

당시 김 소방교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만삭상태였다.

강태우 소방교는 “저와 아내 모두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아내와 뱃 속의 아이도 건강해 그저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529

## 道 원승이두창 지역사회 전파 차단 '총력'

원승이두창 방역대책반 운영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대응 강화

충남도는 6월 22일 국내 원승이두창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으며, 5개팀 45명으로 구성된 도 방역대책반은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주요기능은 의심환자 모니터링, 역

학조사, 검사·치료, 협업체계 유지 등이다.

원승이두창 환자는 에볼라바이러스 병 대응체계와 유사하게 대응하며, 의사환자는 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배정한다.

현재 아산총무병원에 1개 병상을 지정했으며, 의사환자 확산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마쳤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 후 병변 가피 탈락 시까지 격리치료 한다.

도는 방역대책반 구성과 함께 도 의

사회와 의료기관장을 대상으로 의심·확진환자 진료 시 신고·보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일주일 내에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도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귀국후 3주 이내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1339)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92



### 가뭄 대응 '금강 공주보' 담수

환경부는 충남·공주지역 가뭄대책 하나로 공주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가뭄이 해결되면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다. 6월 16일 금강 공주보의 수문이 닫힌 채 소량의 물만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사진 위) 지난 15일 열려있는 수문.(사진 아래)

/연합뉴스 제공

## 김혜지 주무관 유엔자원봉사단 근무

성평등 증진 업무 담당

충남도 국제통상과 김혜지 주무관이 유엔자원봉사단(UNV)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걸프

사무소 젠더전문관으로 임용됐다.

김 주무관은 여성가족정책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서 성평등 증진에 관한 현장경험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했다.

유엔자원봉사단에서는 성평등 증진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유엔자원봉사단은 제25차 유엔총회 결의 제2659호에 의해 설립된 유엔 내 봉사기구이다.

/인사과 041-635-3524

## 장마철 과수화상병균 확산 주의 의심증상 발생하면 신고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장마철 연속 강우 이후 과수화상병 병원균 전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균 확산을 예방하려면 사과·배

재배 농가는 장마 전 미리 물길을 정비해 다른 과수원으로 빗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그친 뒤에도 바로 과수원에 들어가 농작업을 하면 작업 도구나 작업복 등에 의해 병원균이 전염될 수 있어 빗물이 완전히 빠진 후 출입하는 것이 좋다.

매몰이 완료된 과수원은 폭우 시 토양이 쓸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매몰지 경사지에 비닐을 덮어주고 물길을 정비해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대표전화(☎1388-8572)로 신고하면 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66



### 도내 과속방지턱 조사·정비

충남도는 오는 29일까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와 시·군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일제 조사를 한다. 도는 시군과 과속 방지턱 설치 지침(형상, 폭, 높이)에 어긋나 있거나 파손 및 색상 퇴화, 교통안전 표지 파손·미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철거 후 재설치,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3

## 충남 시각장애인 어르신 한자리에

### 화합의 장 개최·공연, 장학금 전달

충남도는 도시각장애인연합회와 6월 22일 아산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제28회 시각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 한마당’을 개최했다.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행사는 아산시지회 무지개 밴드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흰지팡이 장학금 전달, 행사를 알리는 대회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맛풍당당**  
제철농산물 도장깨기

2022년 4월 ~ 2022년 11월

신선한 제철 상품을 농사랑에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고 즐기다보면 경품이~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행사 참여는 농사랑 웹사이트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http://www.nongsarang.co.kr

# 시원한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는 여름 캠핑!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제각각 피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천연 나무그늘이 가득한 숲속은 캠퍼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여름 캠핑 장소다. 국내 캠퍼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는 충남도 내 국·공립 자연휴양림 야영장을 소개한다.

김혜동/khd1226@korea.kr



■ 국립(3개소) ■ 공립(8개소)

## 숲속힐링 캠핑

### 공주산림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  
☎041-855-0855  
★계룡산, 목재문화체험관

### 금강



•세종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041-635-7400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 용현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339  
☎041-664-1971  
★용현계곡, 숲속체험장

###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희리산길 206  
☎041-953-2230  
★문수봉, 생태박물관

### 성주산



•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 57-228  
☎041-934-7133  
★계곡수영장, 편백나무숲길

### 영인산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041-538-1958  
★물놀이장, 수목원

### 칠갑산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041-940-2428  
★물놀이장, 천문대

### 태학산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휴양림길 105-2  
☎041-529-5108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그래픽/김선이

# 전통두부 생산·판매로 일자리 창출·마을에 ‘활기’

정동영농조합, 우수마을기업 선정  
제품 개발 등 7000만 원 지원

부여군 정동영농조합법인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우수마을기업 선정심사에서 우수마을기업으로 뽑혔다. 충남에서는 유일한 사례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업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수의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심사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1개 마을기업이 도전해 지난 5월 말 서면 심사, 발표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16개 마을기업이 선정됐다. 우수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 기반시설확충, 흥보비용 등 최대 7000만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정동영농

조합법인(대표 김영범)은 2018년 신규 마을기업 진입을 시작으로, 2020년 재지정마을기업으로 진입한 부여군 대표 마을기업이다. 특히 지역 어르신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국산콩과 천연간수를 이용한 전통두부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두부만들기체험프로그램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마을기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부여군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2년 신규 마을기업 1개소, 재지정 마을기업 1개소, 예비마을기업 2개소, 우수마을기업 1개소 등 총 5개소의 마을기업 육성 성과를 거뒀다.

/부여군 제공



‘홍성마늘’ 첫 수확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홍성(홍산)마늘’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가운데, 전국 각지 출하를 위해 농가에서 마늘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홍성군에 홍성마늘 재배농가는 300여 농가에 이르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80㏊로 추정, 올해 1000톤 가량 수확이 예상된다.

/홍성군 제공

## ‘슬기로운 청양 청년’ 참가자 모집

4개팀 선발 250만원 지원

[청양] 청양군은 ‘2022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청년 대표단체인 청년네트워크(단장 최영진)가 충청남도 청년참여·정책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다.

청년학교 3개 과정과 청년 커뮤니티

4개 분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학교 과정은 ▲청년 부자방법 찾기 ▲지역자원 탐색 공유 ▲재활용 셀프 인테리어로, 첫 번째 과정인 ‘청년 부자방법 찾기 경제학 교실’을 오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7회차에 걸쳐 매주 수요일 청춘거리에 있는 청춘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커뮤니티 분야는 ▲공연 ▲문화 ▲창업 ▲지역홍보로 6월 30일까지 4개 팀(5인 이상 구성)을 선별해 각 팀에 약 2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전에 지역 청년과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청양군에 거주하거나 군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슬기로운 청양청년’ 또는 청년 네트워크 간사(임선미 010-2514-4774)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정서 미래전략과장은 “청양군에 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는 청년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 QR코드로 농산물 이력 ‘한 눈에’

논산시, 로컬푸드 인증마크 강화

129품목이 관리되고 있다.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463성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현장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을 통해 연중 수시로 유통중인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206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채소류 67품목, 과일류 24품목 등 총

/논산시 제공

## “머드 이모티콘 무료로 받으세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D-30일 기념  
공식 캐릭터 총 16종 무료배포

[보령] 보령시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D-30일을 기념해 보령시청 카카오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박람회 공식 캐릭터 토니, 꾸니, 자리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재치있는 문구와 동작들로 디자인한 ‘토니·꾸니·자리의 신나는 하루’ 이모티콘 총 16종을 배포했다.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령시청’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기존 채널 구독자와 신규 구독자 등 총 18만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다음으로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2차 이벤트 종료 후 쇄도한 이모티콘 출시 요청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개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란 주제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간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보령시 제공



## 1500년 전 백제 위용 ‘무령왕릉’에서 만난다

2022 백제어울마당 18일 개막  
창작 공연 등 프로그램 풍성

[공주시] 공주시의 대표적인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인 ‘2022 백제어울마당’이 오는 18일 개막한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백제어울마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령왕

릉과 왕릉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시 두 차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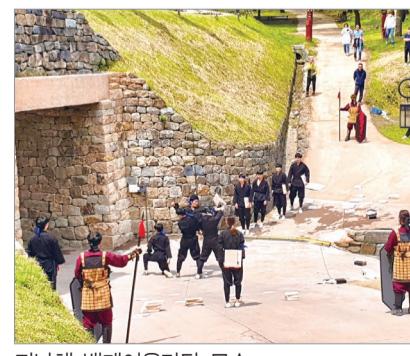
다만,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혹서기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연장 운영한다.

특히, 올해 백제어울마당은 1500년 전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포한 무령왕의 이

야기로, 실력 있는 전문 배우와 출연진들을 기용해 더욱 완성도 높은 창작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 참여 이벤트로 출연 배우들과의 사진 활영 및 관람 인증 사진을 담은 포토 카드를 증정하고 SNS 해시태그를 활용한 추첨이벤트 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연 관람 후 공주시 해



지난해 백제어울마당 모습

람객들에게 다양한 백제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시간도 갖는다.

이철원 관광과장은 “2023년 대백제 전을 대비해 올해는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고 완성도 높은 역사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하고 풍성한 볼 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 전통주 빚고 양갱 만들고

당진시, 면천읍성 체험 ‘풍성’  
읍성 360도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동행 1인당 3만5000원

[당진] 당진시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2년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면천읍성과 당진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해볼 수 있는 ‘면천읍성 360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외 참여객을 대상으로 면천읍성, 면천두견주 전수 교육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등 당



면천읍성 활쏘기 체험

진 문화유산을 답사·체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동반한 10개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5000원(체험비, 중식비 등 포함)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면천읍성 역사해설투어 ▲면천의 대표 음식 체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면천 레트로 거리 자유 관람 ▲양갱 만들기 체험 ▲면천두견주 만들기 체험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투어 및 줄다리기 체험 등이다.

특히 면천읍성 역사해설투어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었던 장소들을 거닐며 그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으로 면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지환 문화관광과장은 “면천읍성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브랜드나 로컬푸드와 같은 지역밀착형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네이버 카페 ‘면천읍성 360도 투어(cafe.naver.com/mc360tour)’로 하면 된다. /당진시 제공



부여의 한 캠핑장에서 반려식물 기르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 야영장 체험객 ‘북적’… “2박3일이 순식간에”

### 군, 민간업체와 활성화 프로그램

### 낚시·음악회·맛집 탐방 등 운영

[부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 소재 야영장이 관광객들로 북적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야영장과 연계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부여’에서 느끼는 다섯 가지 즐거움’을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큰 호응을 이끌어 낸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부여 관내 6개 캠핑장이 참여해 2박 3일동안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반려식물 기르기, 가족낚시 프로그램, 부여10미를 이용한 치유 음식 만들기, 부여 작은 숲속 찾아가는 음악회 등 ‘치유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안전 캠핑 사고방지 교육과 긴급 비상쉘터 구축하기 등이 포함된 ‘으랏차차 캠핑 아카데미’, 수륙양용버스와 황포돛배를 타며 부여를 누비는 ‘부여 구석구석’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다양한 프로그램 덕에 2

박 3일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갔다”며 “새소리 알람, 빗소리 캠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주요 관광지와 야영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매력적인 역사도 시뿐 아니라 캠핑 매니아 층에게도 부여군의 매력적이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4일까지 매주 금·토·일 2박 3일 동안 진행된다. 문의 및 예약은 부여군야영장연합협동조합(☎010-9494-0436).

/부여군 제공

## 쓰레기 줍고 건강도 챙긴다

### 금산장애인체육회, 플로워킹데이

[금산] 금산군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5일 걸으면서 쓰레기 등을 주워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도 관리하는 플로워킹데이를 개최했다.

플로워킹은 플로깅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뛰는(조깅)게 아닌 걷는(워킹) 의미가 담겼다. 플로깅은 ‘줍다’의 의미의 스웨덴어 plocka upp와 ‘조깅하다’의 의미인 jogga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3월 충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2022년 뉴아이디어 공모사업에 5.5대 1의 경쟁률 끝으로 선정돼

도비 5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장애인 및 체육인 30여 명이 참여해 금산종합체육관 인근의 금산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군 관계자는 “환경보호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며 “참여자들 중에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돼 활동반경이 큰 플로깅 대신 플로워킹 행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오는 2023년 충청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다음해인 2024년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산군 제공

## 바지락·꽃게 종자 620만 마리 방류

### 서천군, 어업인 소득 향상 기대

[서천] 서천군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천군 연안 일원에서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수협과 어촌계 등 어업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희망 품종 및 장소를 조사하고, 서식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하, 꽃게, 넙치, 동죽, 바지락 등 연안의 주요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방류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동죽, 바지락 등의 종呼ばれ 28t을, 6월 중 꽃게종자 56만 마리, 대하종자 612만 마리의 방류를 완료했으며, 내달 넘치

종자 약 9만 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군에서 시행하는 방류 사업 외에도 충남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주꾸미 등의 종자를 무상 방류하고 있으며 업종별 어업인 단체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방류 지역별 효과조사를 시행하는 등 연안 수산자원 보전에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행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서천군 제공

## 아산시, 귀농 지원사업 접수

[아산] 아산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8일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041-537-3856)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 제공



2022. 10. 07 - 10. 23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일원)



www.expo22.kr

주관 계룡시

주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유교문화, 미래세대에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

### 내포칼럼



황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관

**유교문화의 본질인 충·효·예  
충청지역, 기호유학 중심지  
조선시대 중앙정치무대 주도**

**'충청유교문화원' 전립 결실  
유무형 문화자산 관광자원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기대**

경상지역 장손집안의 막내딸인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제례를 후손이 지켜야 할 '도리(道里)' 중 하나라 여기며 자랐다. 누가 가르쳐주거나 그리 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 그저 가족과 친족이 행하는 다양한 유교문화의 실천적 행위를 보고, 때로는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것이다.

우리 집은 향교가 자리한 교촌리 인근 마을에 자리했다. 중학생 때 유학의 가르침을 2주간 접할 기회를 맞았다.

향교에서 열리는 여름방학 '종효교실'에 운 좋게 입교한 것이다. 대성전(大成殿)에 성인과 선현들을 배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명륜당(明倫堂)에서 사람됨의 중요성을 배웠다. 향교라는 유형의 공간에서 유교문화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과 충(忠)·효(孝)·예(禮)라는 무형의 가치를 흡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로써 나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유교문화의 영재교육을 고루 받은 셈이 되었다. 성년이 되어서도 서원과 재실(齋室), 종가(宗家)를 드나들며 유교문화에 심취한 것은 이 같은 문화적 환경의 반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유교문화에 대한 나의 관심은 대전에 보금자리를 튼 후에도 이어졌다. 충청지역은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사상이 전개된 중심지로 기호학통의 메카이다. 뛰어난 학자와 관료, 절의를 실천한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중앙정치와 성리학계를 주도한 인물 대부분이 충청 출신이다. 이를 입증하듯 충청의 문화재 중 약 40%가 유교와 관련되어 과거의 사상과 문화를 이어 내일로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예학정신과 학통, 사상체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을 위시하여 종학당, 재실, 종가, 향교 등 수많은 지정·미지정 문화유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2010년 이후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

육, 관광문화자원,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유교문화에 대한 국가와 자체의 관심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한 지역 향교와 서원, 고택활용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9년 전국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과 '유교문화박물관' 개관 등 유교문화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하다.

충청지역 역시 충청유교문화자원의 현재화를 위한 학술적 차원의 접근을 비롯하여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서원과 향교의 다채로운 체험행사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원을 목전에 둔 '충청유교문화원'은 충청의 유교문화를 구축한 선조들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유교문화는 종종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되어 '새로움' 또는 '변화'의 반대어를 의미하거나 그리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유교문화의 본질에 접근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교문화의 전통을 향유할 기회제공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충청지역에 유형과 무형의 형태로 켜켜이 쌓여있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충청유교문화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 둘 끼어 갈지 주목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교문화 프로그램 구성에 얼마나 공을 들일지. 다 끼어진 구슬이 보배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충청지역의 유교문화가 미래세대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속과 변화를 거듭하므로 유교문화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망각하면 곤란하다.

## '원시민'이 일군 작은 기적

###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서천군 시초면의 작은 마을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기로 반찬을 나누고 정을 쌓으며 행복한 공동체를 가꾸면서 귀농·귀촌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주민들이 반찬 나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시민'이란 프로그램이 첫 단초가 됐다.

간접을 싫어하는 귀촌인들과 새로운 이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원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붙어지기 마련.

서천군자원봉사센터는 이들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다 '원 one, 하나의 시초 면민이 되자'는 뜻을 담아, '우리는 원시민'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한 가지 씩 실천에 옮겼다.

처음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거창함보다는 서로 편하게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등산이나 요리 등의 취미생활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이 지내자는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 어 주었다.

행복한 동행이 한 1년 지났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원시민' 활동이 잠시 중단되자 귀촌인들과 원주민들이 함께 모여 정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던 중 "올해는 우리 같이 모여 시초면을 위해 일해보자"는데 뜻을 모았다.

식사를 제때 드시지 못하고 혼자서

장 보러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미력이나마 돋기 위해 '원시민의 행복한 반찬나눔'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하나 되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웃들과 정이 쌓이며 어르신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돋는 좋은 이웃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마을 이상은 반찬을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화구 2대를 설치해주었고, 마을 주민들은 시간을 내어서 봉사를 돋고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지원하면서 이제는 마을이 함께하는 반찬나눔사업으로 성장했다.

이들 회원들은 센터 지원이 끊기더라도 마을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고추나 양파 같은 식재료를 가져오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반찬나눔사업으로 바뀌는 결실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원시민' 회원들은 반찬나눔을 실천하며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단다.

어르신들과 관계를 형성하니 자식처럼 편히 대한다는 것,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모두가 마을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 내가 정을 나누면 그 이상으로 정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정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실천했던 반찬 나눔사업이 처음 2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늘었다고 한다.

원주민과 귀촌인들이 하나 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반찬나눔사업'이 시초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며 서천군을 넘어 충남 마을 곳곳에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 KTX 달리는 서해안 '생태문화 수도'로 재탄생

### ■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정부의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KTX)와 서해선 복선전철이 직접 연결되고, 서해선과 장항선, 경부선, 수도권 전철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서해선의 종점인 흥성에서 서울 도심(서울역 등)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1시간 이내로 통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KTX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3시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여 충남서해안 지역은 새로운 관광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충남 서해안지역은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되는 천수만,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사업, 안면도 국립공원, 서천 브라운필드 및 갯벌 등 세계적인 해양생태 자원이 밀집된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그간 서해안지역의 해양 관광자원들은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과 접근성 부족으로 저평가되는 물론 적극적인 관광상품화 되지 못하여 왔다.

서해선 고속철도의 운행에 맞춰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한창인 삼교역 인근 고속철도의 정차가 예상되는 흥성, 대천, 인주역을 충남 서해안 해양생태관광을 위한 연계·환승 거점센터로 구축하여 '생태문화 수도 충남'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충남 생태문화수도 산업의 핵심거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천수만갯벌정원, 삽시도아트아일랜드, 서천 개별과 브라운필드 국립공원, 백마강정원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패턴이 급변하고 외부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 치유 및 힐링, 관광 등 비 의료서비스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서해안의 갯벌, 경관, 해수, 바다모래, 머드·소금, 해조류, 해양정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 치유프로그램은 코로나 블루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시점에 와 있다.

서해선 고속철도직결운행, 동서횡단 철도의 건설로 충남 동서남부이 철도망과 연결되고 전국 고속철도망과 연계되면 충남 서해안 곳곳에 산재한 세계적인 해양생태 자원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 할 것이다. 세계적인 해양생태자원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비 의료서비스인 치유와 힐링을 산업으로 만드는 작업이 일명 '생태문화수도 충남'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생태문화수도 충남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없는 굴뚝없는 공장으로서 고용증대, 지역 소득증대, 국내외 문화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충남, 충남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

### 이정록 시인의 서랍

#### 골목

생각이 많아  
멀리 돌아왔다.

골목을 돌면  
사람이 많고  
화분이 많고  
개와 고양이가 많다.

힌웃수거함의  
힌웃이란 글자와  
전봇대에 붙은

가족 구함이란 글자가  
마주 보고 있다.  
낯선 사람과  
이름 모를 꽃과  
짖으려다가 꼬리를 치는 개와  
생각이 많아 자동차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가  
내 복잡한 생각을 조금씩 떠어간다.

골목은  
내 생각을 생각하려고  
가로등을 환하게 밝힌다.

'자구의 맛' 한겨레아이들

슬럼프에 빠지면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엄살과 과장으로 한숨과 한탄을 내쏟는다. 그러나 생각이 들끓는 동안, 품은 넓어지고 팔짱은 따사로워진다. 골목을 서성거리다 보면 그림자가 긴 사람들이 보이고, 찬사와 경탄밖에 몰랐던 빈 화분을 만난다. 힌웃수거함이 보이고, 등이 굽은 고양이가 보인다. 번호판이 뜯겨나간 트럭을 만난다. 슬럼프는 벼려진 화분 같다. 날아가던 씨앗이 낡은 화분을 만난 것이다. 천천히 뿌리를 딛고 꽃대를 올리면 된다. 새



이정록 시인

# ‘소나무 작가’ 임영우, 계룡에서 ‘첫 선’

30일까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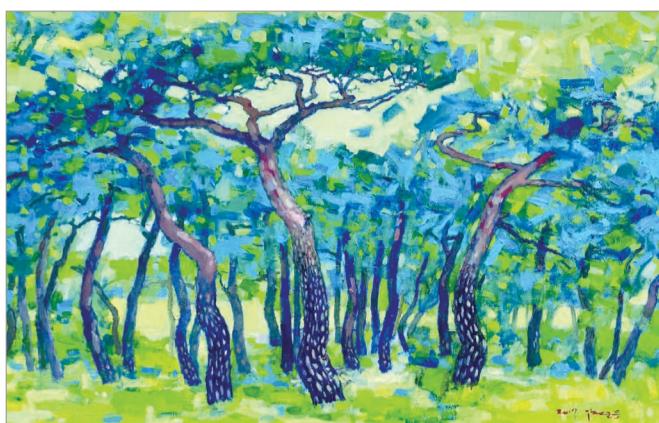
[계룡] ‘소나무 작가’로 널리 알려진 임영우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5월에는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으며, 작가가 거주하는 계룡에서의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룡시 미술 애호가들은 이번 ‘임영우 소나무 전’을 통해서 작가의 반세기 이상 걸어온 원숙한 작품세계를 가까이서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번 계룡 ‘임영우 소나무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10차례의 개인전을 하면서도, 계룡에서는 첫 개인전을 열게 되어 마치 60년을 기다린 친지인 것 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임영우 작가의 초기의 작품들은 원색에 가까운 강한 색과 어두운 색채의 사용으로 젊음의 환경적 저항을 표현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숙연해지는 평정의 세계로 들어서며 따뜻한 인간



대표작 ‘나눔 사랑’



임영우 작가

애를 표현하는 듯 그림이 밝아졌다라는 평이다.

임 작가는 소나무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토속적인 한국적 훈이 짙은 작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소나무를 표현한 ‘붉은 줄기’는 그칠 줄 모르는 예술적 투혼이며, ‘사시사철 푸르름’은 양심을

지키는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미술교사를 거쳐 논산계룡교육장을 역임한 임영우 작가는 업사면 번영2길의 작업실에서 계속되는 초대전 등 작품 발표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작품세계에 몰두하고 있다.

놀뫼신문/권현칠 기자

## ‘청년 윤봉길’ 예술의 전당 공연

극단 예촌…7월 21~24일까지

[예산] 예산 소재 전문예술단체 극단 예촌의 작품 ‘청년 윤봉길’이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른다.

극단 예촌은 다음달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윤봉길 의사의 청년시절을 다룬 연극 ‘청년 윤봉길’을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예술의전당 지역우수공연 공모사업에 극단 예촌의 작품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전국의 공연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해 성사되었

다. 특히, 올해는 윤봉길 의거 90주년 기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훈 작가가 쓰고 이승원 극단예촌 대표가 연출한 ‘청년 윤봉길’은 ‘역사의 제단’이라는 작품으로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군 단위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윤봉길은 예산 지역이 고향으로 예산 지역단체가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과 뜨거운 청춘을 작품을 통해 충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승원 대표는 “배우에게 예술의 전당은 꿈의 무대”라며 “그런 무대에서 우리 배우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 고민이 많았고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윤봉길 의거 90주년을 맞이하여 윤봉길 정신을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공연이 촉매제가 되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년 윤봉길’은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연된다. 충남도민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 ☎ 070-7724-3787.

/김혜동 khd1226@korea.kr

## 127년 전 ‘동학 농민혁명’ 함성 되새긴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

[태안] 충남 유일의 동학 기념관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뜻깊은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6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어제 그리고 오늘, 동학농민군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회화

작품과 테라코타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기간 백성을 괴롭히던 사회·정치제도를 벗어던지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94년 일어난 항쟁으로, 이번 기획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041-670-5966)

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현대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이어져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올바른 세상을 향한 127년 전의 함성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충남 최초로 문을 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연면적 158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휴게공간, 야외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유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주간태안신문/이민령 기자

## 눈물로 짜내려간 씨실과 날실의 역사

### ■ 윤성희의 만감 萬感

죽어서 차려입는 마지막 입성이 삼베옷에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멋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옷맵시는 모시옷에 있지 않을까. 삼베옷은 누구나 한 번은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모시옷은 살아생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한산 세모시 한 필 가격이 백만 원을 훌쩍 넘으니 세공비용까지 친다면 여름 옷값이 무려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이다.

한산 세모시는 곧잘 ‘잠자리날개’로 비유되곤 한다. 세모시옷을 입는 것은 우리 몸에 가볍고 투명한 잠자리날개를 두르는 일이다. 세모시옷을 입는 것은 또한 바람을 입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타월한 통기성을 자랑한다. 세모시옷은 한여름의 습기로 농진해진 신경세포에 포슬포슬하고 깔깔한 질감을 선물하기도 한다. 사치의 값이 거기에 다 들어 있다.

그러나 가내 수공업적 직조 공정을 알면 마



‘베를 짜는 여인’ 동상

냥 비싸다고만 할 수 없는 옷이 모시옷이다. 세모시는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고운 실로 짜내려간 직물이다. 모시나무를 벗겨 머리카락 같은 실을 만들고, 그걸로 옷감 한 필을 짜는 데 4000 번의 손길이 달아야 한다고 한다. ‘모시 한 필에 침이 서 되, 땀이 서 말’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산 세모시는 피와 고통의 서사시라 해도 결코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서천을 빠져나와 한산으로 들어서는 초입에 한산모시관이 있다. 모시옷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곳이다. 모시옷이 품은 1500년 전통의 맥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만한 이유가 시작적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곳에서 나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맛’ 뿐만 ‘웃’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으며 문득 한 시인의 시집을 떠올린다.

이곳 시초면에서 나고 자란 구재기 시인의 시집 ‘모시를 사이로 바람이’는 또 하나의 모사박물관이다. 화학섬유는 다 제껴 두고 온통 모시로만 지어낸 시집이니 그야말로 문자로 재현된 기념관 아니겠는가. ‘째고, 삼고, 날고, 매고, 짜기’에 ‘이꼴이 난’ 시인의 어머니와 누이들의 눈물이 선하다. 생의 마지막에 차려입는 삼베옷에도 눈물이 그렇거리지만 모시옷을 짜는 씨실, 날실에도 눈물이 맺혀 있다. 모시옷이 강한 속건성을 가지고 있다지만 거기 배어 있는 눈물은 쉽게 마를 리 없다.

/윤성희(문학평론가)

충청인의 詩香

증

당신은 나의 첫 문장이며 마지막 문장입니다  
또한 탄생 이전의 말이며 세상 이후의 말입니다

당신은 속살의 음률이며 초록을 깨우는 바람이어서  
나는 당신의 소리로 듣고 당신의 빛깔로 봅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당신을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거대한 협곡을 떠도는 파장이고  
나는 그 너머를 유영하는 떨림입니다

울림과 쉼표로 남은 소리의 질료들이  
당신의 계절로 와서 꽃이 됩니다

이제  
나의 언어를 삭제합니다

말의 찌꺼기를 버리기로 합니다



김가연 시인

·시인, 우보민태원기념사업회장  
·서산문학예술연구소 대표



서화가 이윤희 씨

서화가 이윤희 씨 개인전 ‘주목’

문인화 현대적 재해석 눈길

[홍성] 흥성과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화가 이윤희(60) 작가의 개인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윤희 작가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유월에 숲·소리’를 주제로 53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유의 부드럽고 화사한 색감으로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묘사한 이 작가는 대표작으로 노란 빛깔의 서정과 ‘쉼’을 강조한 유채꽃밭,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투영한 찔레꽃 등을 꼽았다.

이 작가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지를 전통 천연염색기법으로 물들여 오묘하면서도 깊은 배경색감을 뽐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통문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들로 평단에 깊은 인상을 남겨왔다.

지금까지 13회 차례의 개인전과 100여 차례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한국화단에서 중견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이 작가는 흥성군 내포신도시에서 ‘들길 봇놀이방’을 운영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서예를 가르치고 있다.

문의 ☎ 010-3660-5569.

/김혜동 khd1226@korea.kr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 “가장 오래된 과일 체리…버릴 게 하나 없어요”

서산아라메체리농원 유병일 대표  
활성화 성분 풍부 건강에 도움

**[서산]** “신석기시대부터 인류가 걸어온 동안 가장 오래된 과일이 있어. 이 과일은 최고의 다이아몬드급 과일인데 바로 체리야. 애는 늘 귀한 대접을 받았어.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뭔가 하니 빼졌다 싶으면 체리를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지. 그러면 1% 어색하던 것도 완벽하게 메꿔져. 깊이 있게 바뀌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난 10일 꼬불꼬불한 촌로를 지나 1500평 규모의 서산시 해미면 분홍재길 91(홍천리) ‘서산아라메체리농원’이 일행을 맞았다.

이육사 시인은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곳 분홍재의 유월은 기품 있는 체리가 알일이 익어가는 시절이라 고 일컬고 싶다.

“이 귀한 과일을 양푼째 먹다니요.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자 ‘서산아라메체리농원’ 유병일 대표는 배꼽이 체리 만큼 빠져나올 때까지 먹으라고 했다. “먹으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색깔이 있다면 바로 체리”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약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일일이 효능을 설명했다.

“항산화물질이 많은 과일로 치자면 체리를 빼뜨릴 수 없다. 노화를 억제 할 뿐만 아니라 과산화 억제 역할을 하는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빈혈 예방에 좋다. 팔기의 6배, 사과의 20배에 달하는 철분이 풍부한 과일이 바로 체리다. 수면 호르몬의 상승으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고, 칼륨의 좋은 공급원으로 혈압조절에도 탁월하다.

6월의 과일 체리다이어트에도 좋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이름도 이쁜 체리는 100g당 60Kcal 낮은 열량을 자랑할



유병일 대표가 체리나무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분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해준다. 피부미용과 노화억제, 피로회복에도 탁월하고 무엇보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에 탁월하다.

당뇨예방에도 체리는 남다르다.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가리킨다. 다행히도 체리는 체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1.5배가량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통증에도 좋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높은 소염효과를 갖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리를

20개 정도 섭취했더니 마치 소염진통제인 아부프로펜을 먹은 것처럼 통증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니 버릴게 하나도 없어. 지금 많이 먹어두지 않으면 내년 6월이나 만나.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

서산시대/최미향기자

## “우쿨렐레 선율로 따뜻한 마음 나눠요”

성당 신자 모임 ‘글로리밴드’  
지역 축제 등 공연 봉사 활발

**[당진]**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버그내 회관 2층에는 우쿨렐레 연주 소리가 창밖으로 새어 나온다.

나일론줄을 손가락으로 훅기면 때로는 포크송, 때로는 친숙한 가요가 된다. 벌써 글로리밴드(회장 김현자)가 서로 화합한지도 7년째다. 우쿨렐레 선율로 지역에 사랑을 전해 온 글로리밴드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봉사와 공연을 이어갈 준비에 한창이다.

글로리밴드는 신합덕성당의 신자들로 구성된 우쿨렐레 동호회다. 음악을 좋아하거나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새로운 악기를 다뤄보고 싶었던 신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마음 맞는 회원 7명과 우쿨렐레를 지도하는 구자일 강사가 합을 맞추고 있다.

글로리밴드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지역 요양원 등을 찾아 어르신에게 우쿨렐레 연주로 기쁨을 선물하고, 또 지역 축제가 열리면 무대



신합덕성당 신자들로 구성된 ‘글로리밴드’

에 올라 흥을 돋우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모여서 연습하기가 어려워졌고, 공연과 봉사의 기회가 줄기도 했다.

그랬던 글로리밴드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오는 6월 10일 열리는 당진생활문화예술제 무대에 오르기 위해 현재 연습에 바쁘다. 또한 다시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글로리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단합이다. 매주 한 차례의 연습에도 참석률이 100%에 달할 정도다.

이승자 회원은 “연습하는 날이면 회원 참석률이 100%”라며 “나 하나만

연습이나 봉사, 행사에 나오면 모두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에는 글로리밴드 회원이 함께 성지순례와 겸해 일본의 각 성당에서 우쿨렐레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리밴드는 나이가 많은 적든 우쿨렐레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밴드다.

김현자 회장은 “곧 열릴 생활문화예술 공연을 마치면 합덕에서 열리는 합덕제연호문화축제를 비롯해 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진시대/한수미 기자

## 복지 사각지대 찾는 ‘좋은 이웃들’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선행

**[청양]** 충남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민근기) ‘좋은이웃들’ 사업단이 복지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강희)와 연계 남양면 노인 가구를 방문, 주방시설과 싱크대를 교체해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에는 청양군 정리수납 119봉사단(회장 명선옥) 회원 10여

명이 참여, 주방뿐만 아니라 방과 거실 등 거주자 동선에 맞춘 정리수납 봉사를 펼쳤다. 이들은 또 살림도구와 방 곳곳에 쌓인 먼지 등을 말끔히 청소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좋은이웃들’ 사업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간이나 관공서를 연계해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돋는 봉사단체다.

청양신문/이관용 기자

## ‘이재윤’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아시아카뎃태권도선수권 출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여 아시아 카뎃태권도 -65kg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2021년 태안초를 졸업한 이 선수는 태안초 재학중 태안 솔로몬태권도장(관장 한남희)에서 본격적인 태권도를 시작해 월등한 성장을 보여 예산중학교에 진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태안신문/신문웅 기자

##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2007년 인류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출시되고 2009년 11월 28일 국내에 최초로 출시한 아래로 1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스티브 잡스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을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바로 포노사피엔스 정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책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다. 목차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1장.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2장.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3장.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4장.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스마트폰은 우리를 명청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

난 혁신의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저자는 처음부터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에 당신은 준비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책의 도입부에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는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항상 궁금해했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명료한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바꾼 크리에이터이자 혁명가라고 소개한다. 즉 우리가 혁명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이라고 답을 한 것이다.

책의 제목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한 것도 결국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진

현생인류가 스마트폰이 가져온 새로운 문명의 시대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이 향하는 방향에 대한 철학적 탐색과 새 기술이 가져온 부작용의 뒷면을 고민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문명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혁명의 위기를 넘어, 함께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갈 것을 제안한다.

/신배재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사서들의 서재



(2019, 최재봉)

# 도민과 함께 밟은 4년,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 제11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

33회 회기 1494건 의안 처리  
상임위 및 사무처 조직 확대  
입법평가·분석 등 전문성 제고  
토론회 102회·44개 연구모임  
의회 청렴도 3년 연속 우수

충남도의회는 22일 제11대 충남도의회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함께 한 4년간의 성과와 노력을 되짚었다.

### 변화 대응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4년

제11대 의회는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힘쓰고, 도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33회(491일) 회기를 운영하며, 1494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1013건의 의원 발의와 적기 처리를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500건의 도정질문과 378건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민의 고충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6개 상임위원회를 7개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초기 7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제11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전체 기념사진을 찰영하고 있다.

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전문성 높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사무처를 3담당관 7전문위원 7팀 체제에서 5담당관 7전문위원 13팀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무엇보다 제11대 의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역 의회 최초로 청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렴 시책을 추진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평가받았다.

### 정책 대안 제시하는 일 잘하는 의회

제11대 의회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해결을 위해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문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건의문 등 88건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문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문 42

건을 채택했다.

건의문과 결의문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 분야 충청권 반영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KBS 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등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펼치기도 했다.

### 능력 있고 경쟁력 강한 선진 의회

제11대 의회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요구가 뒤따랐고, 정책

연구·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충남도의회 정책 위원회는 ▲입법정책 연구용역 선정 심의·평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선정 심의·평가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상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용역 과제 등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11대 의회는 102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운영했다. 연구모임은 도의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졌으며, 44개의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 전문성 강화된 상임위 ‘도민 맞춤형’ 소통의회 도약

### 제11대 후반기 의회 성과

#### 전문적 의안 심사/현장 행보

충남도의회는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7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 제12대 충남도의회 개원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을 다루며 의회 조례와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운영위는 심사 120건, 협의 91건 등 총 211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회 조례 용어의 우리말 순화로 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섰으며, 강도 높은 행정감사로 의회 사무처 역할 재정립을 요구, 예산 낭비 없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충남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경제위)는 공

보관, 데이터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등을 소관기관으로 한다. 경제위는 조례 84건을 제·개정안, 32건의 건의·결의안, 344건의 행정사무감사, 121건의 도정질문·5분발언을 처리했다. 경제위는 특히 ‘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조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상공인을 만나 고충을 듣고 충남형 착한 배달앱 ‘소문난 샵’을 오픈, 전국 최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꿈비채 등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앞장서 왔다.

####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화)는 충남도 조직을 지원·견제함으로써 도민 권리향상에 앞장서 왔으며 소관 기관은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 등이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 119건, 건의·결의안 10건, 5분발언·도정질문 62건, 27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206건을 처리했다.

행문화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로 충남 공공기관 유치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집중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경)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들어 신설된 상임위로, 소관 기관은 도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실·국·원, 4개 의료원(천안·서산·공주·홍성),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등이다. 복환경은 조례안 71건, 동의안 12건, 예·결산안 21건을 처리했으며, 건의·결의안 12건, 5분발언·도정질문 36건 등 총 150여 건의 의안을 해결했다. 복환경은 코로나19로 허물어진 도민의 삶을 보듬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수해위)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다. 농수해위는 조례 제·개정 53건, 동의안 5건, 건의·결의안 12건, 도정질문·5분발언 70건 등 총 140여 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농수해위는 팬데믹에 따른 소비·유통구조 재편에 맞춰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힘을 쏟고, 계절 근로자 지원제도 확대 등 고질적인 농어업 일손 부족 해결 나섰다.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하 안건소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관 기관은 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이다. 안건소위는 그동안 조례 47건, 결의안 12건, 규칙·건의안 12건, 예·결산 22건, 도정질문·5분 발언 45건 등 총 13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안건소

위는 하천 정비, 취약도로 개선 등 안전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았다. 특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 119 전담 구급대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왔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충남교육청(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조례안 42건, 동의안 26건, 예·결산기금 21건, 건의·결의안 13건, 도정질문·5분발언 29건 등 총 13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교육위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금융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등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했으며 ▲기초학력 보장·향상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교육의 공정 기능을 확대해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간·학교 간 배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



# “초심과 진심 담아 혁신의회 만들 것”

6·1 지방선거 초선 당선인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의회운영, 조례 제정, 예·결산  
심사기법 연수·의원 전문성 제고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14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6·1 지방선거 초선의원 당선인 32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조례안 만들기 등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7월 개원할 제12대 의회의 초선의원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정활동 흐름 및 기본개념 교육 등을 위해 준비됐다.

워크숍에서는 충남도의회 정제석



제12회 충남도의회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사당당관과 국회입법조사처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충남도의회 한태식 예산정책담당관이 각각 ▲지방의회 운영 ▲조례안 만들기 ▲예·결산 심

사 기법을 교육했으며,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규정과 회의 진행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초선 당선인들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공유하며, 4년간 초심을 잊지 않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혁신적인 의정 성과를 창출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선 의장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국회 결단 ‘촉구’

‘안전운임제 확대 결의안’ 채택  
모든 화물차·품목 적용 필요

충남도의회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2일 제3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교통안전지표 개선,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구조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2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6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골자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며 “그러나 2021년 1월 4일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음에도 15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결단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 모든 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움아트홀, 당진지역 작가 전시전

열 번째 전시 당진작가 초대전

충남도의회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당진문화원과 함께 당진지역 작가를 초대해 작품을 선보였다.

충남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 욕구 총족을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개

관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개관전 이후 열 번째 전시를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당진문화원 소속 29명 작가의 29개 작품을 2주 동안 만나볼 수 있다.

조인숙 작가의 작품 ‘소라’를 포함해 서양화·수채화·서예작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과 전문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오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문화예술 작품들을 만나보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주문

교육위원회, 2021회계연도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를 간 2021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2021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4조 3900억 원으로 전년도 4조 163억 원 대비 373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출액은 4조 25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가 집행됐다.

심사 기간 위원들은 예산편성 당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 산출근거 부족 등 일부 예산이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성과지표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부 기관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매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불용률이 감소했다”며 “직속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 개선사업 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군단위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서산2)은 “목적이 분명하고 집행을 미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유가 없는 명시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학교의 장점을 살린 학생 중심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돋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 교육 공간 제공 등으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소통 의정  
실천 의정  
행복 의정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2022 BORYEONG SEA MUD EXHIBITION**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2.7.16~8.15

#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 보령해양 2022 머드 박람회

## 7.16 ~ 8.15

### BORYEONG SEA MUD EXHIBITION

주최 충청남도 보령시 주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개최기간**  
2022. 7. 16.(토) ~ 8. 15.(월) (31일간)

**개최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82 (주행사장) 대천해수욕장 일원

**프로그램**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머드 체험관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머드 웰니스관	특산품 홍보관	해양머드 영상관	학술행사

**이용요금**

구분	입장요금(원)		적용범위
	현장요금	예매요금	
<b>보통권</b>	일반	12,000	9,000
	청소년	9,000	7,000
	어린이	6,000	5,000
<b>단체 할인권</b>	일반	9,000	-
	청소년	7,000	-
	어린이	5,000	-
<b>무료입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li> <li>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li> <li>만 75세 이상인 자</li> <li>만 4세 미만 아동, 공무 수행자,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li> <li>단체 인솔자(20명 기준 1인), 단체관람 유치여행사 가이드 1인</li> <li>학교단체 인솔 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 예매 및 당일판매 20명 이상</li> <li>외국인: 예매 및 당일판매 10명 이상</li> <li>특별할인(인원에 상관없이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만 65세 ~74세</li> <li>보령시민(주민등록기준)</li> </ul> </li> </ul> </li> </ul>		

**사전예매 이벤트**  
**약 20% 할인** 오픈일~22년 7월 15일 까지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행사장 운영안내 041)930-2842 입장권 예매 041)930-2831**

**입장권 구매 QR**